

서평]

앨런의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비판

류 성 희

주제분류 인식론, 정치론(정치철학)

주요어 베버, 가치자유, 종교론, 제국주의자, 방법론

요약문

2010년, 앨런의 책(*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앨런은 사회학 내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 막스 베버의 다른 면모를 밝히려고 했다. 또한 그는 사회학의 보수적인 관점을 베버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해코자 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베버의 총체적인 관점(방법론적, 정치론적, 종교론적)을 모두 다루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서평은 앨런의 막스베버에 대한 해석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코자 한다. 분명 그의 시도는 분명 야심찬 기획이었지만, 베버에 대한 그의 해석은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앨런에 따르면, 베버가 국가주의자를 넘어 제국주의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바라본다. 그러나 베버의 정치론적 관점은 수많은 베버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베버 스스로도 군국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관점에 동의한 바 없다. 또한 방법론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치자유’를 마치 시간-초월적인 혹은 초월적인(선험적인) 무엇으로 이해하는 앨런의 이해방식에 수긍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베버 종교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무엇보다 그의 동양에 대한 관점이 서구 우월성에 기초한 것이라는 관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앨런의 시도가 상당히 도전적이었지만, 그 연구 성과는 많은 논란과 결함을 가진 것이라 판단된다.

* Kieran, Allen. 2010.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박인용 옮김.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삼인.

1. 서론

막스 베버 서거 90년이 흘렀다. 베버의 죽음 이후 90년을 어떻게 해석 할지는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룩한 베버연구와 열정은 우리나라를 ‘베버연구의 거점’¹⁾으로 만들어 놓았다.

- 1)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막스 베버 연구에 있어 거점으로 등장했다고 한 근거는 영미권에서 나온 일련의 연구들과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영미권 내 베버 번역에 있어서 많은 오류들이 지적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선택적 친화성’ 논의가 있다. 선택적 친화성에 대한 논의는 베버의 독일 원문 “*Wahlverwandschaft*” (친화성)을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가 영어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correlation”(상관관계)으로 번역했다. 이에 대해 벤딕스(Reinhard Bendix, 1959)와, 휴(R. H. Howe, 1978)가 “affinity”로 고쳐쓰기를 주장함으로써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Bendix, 1959; 64쪽; Howe, 1978; 366-385쪽; Baehr and Wells, 2002 참고). 그럼에도 여전히 베버의 논의를 “자본주의자”와 “퓨리탄”의 상관관계(correlation)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프리 알렉산더(Jaffery C. Alexander)가 그렇다(Alexander, 1996; 28쪽). 실제 베버가 사용하는 “*wahverwandt*”(친화성)은 화학적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다. 관련하여, 전성우는 친화성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Wahlverwandschaft*는 원래 화학용어로서 두 원소가 상호 친화력으로 인해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지칭한다. 베버는 역사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엄밀하고 결정론적 인과관계보다는 흔히 이러한 선택적 친화력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문호 괴테는 1809년에 간행된 *Die Wahlverwandschaften* 이라는 소설에서 두 쌍의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애정관계의 미묘함을 친화력의 작용에 빗대어 서술하고 있다. 대단한 괴테 숭배자였던 베버는 선택적 친화력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작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전성우, 2008; 162쪽).”

또한 영미권에서 번역된 쇠우리 혹은 쇠창살(iron cage) 역시 오역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쇠우리로 번역되는 독일어 원문은 “*ein stahlhartes Gehäuse*”이다. 실제 베버의 “*stahlhartes Gehäuse*”(shell as hard as steel)를 파슨스는 “iron cage”로서 번역하였는데 이는 파슨스의 번역 이상으로 보다 복잡하고 근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류성희, 2009; 93쪽). 파슨스의 “iron cage”는 독일어인 《*Eiserner Käfig*》(쇠로 만든 우리)정도로 해석될 뿐인데(Baehr, 2001; 162쪽), “iron” 보다는 “steel”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steel은 그 자체로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금속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탄소강도가 훨씬 iron보다 많이 함유되어 더욱 견고할 뿐만 아니라 유연한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Baehr, 2001; 162쪽). 인간이 만들어낸 목적합리성의 강화가 결국 인간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age”보다는 “shell”이 적당하네 왜냐하면 shell은

외부적으로 부과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강철 외투(steel sheel)는 근대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새로운 곳인 동시에 자연을 변형시킨 자리이다(Baehr, 2001; 164쪽). 그래서 Peter Baehr는 "iron cage"를 "shell as hard as steel"로 개역하는 것이 옳다고 바라본다. 실제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Gehäuse"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덮개(Mantel)는 하나의 강철 외피(stahlhartes Gehäuse)라는 화(禍, Verhängnis) 가져왔다. 세계 내에서 금융생활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불가피한 영향력 증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 이전 역사에서 결코 없었던 적이 없었다. 최후에 과연 누가 이를 숙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날 이러한 정신은 하나의 껍질(Gehäuse)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승리에 빛나는 자본주의가 운명을 고향 때(jedenfalls), 기계적인 토대에 기반을 둔 이러한 조화(ruht)에 버팀목이 될 것은(Stütze) 더욱 없을 것이다(Weber, 1988: 203-204쪽)."

나아가 베버의 '고대농업사정'(Agrarverhältnisse im Altertum)에 대한 영미권 책 제목은 'The Agrarian Sociology of Ancient Civilization'이다. 이러한 책 제목은 베버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미권에서 나온 베버의 동아시아 연구는 상당부분 논란이 될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프랑크(Frank, 2003)의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에서 제시된 베버의 동아시아 논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베버의 원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으면서 베버를 비판한다. 또한 Marsh(2011)는 그의 연구 "Weber's mis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hinese Law"에서 청나라시대 형식합리성(특히 법적 체제와 실행에 있어)이 존재했음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베버의 동아시아관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Marsh의 논문에서 인용된 베버원문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실제 Marsh(2011)는 베버의 '동양사회론' 해명에 있어 베버의 "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 "유교와 도교(Confucianism and Taoism)"에 기초해 서술한다. 그러나 베버의 종교사회학이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서언(Vorbemerkung)", "중간고찰(Zwischenbetrachtung)" 등의 논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베버의 방법론적 관점조차도 배제된 상태에서 나름의 논의를 진행시켰을 따름이다. 실제, 베버가 종교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의 방법론적 관점이 집대성되고 나서이다.("유교와 도교"연구는 Archive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vol 41, september and november, 1915에 최초로 발표되었고, 베버의 방법론 연구 가운데 중요한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는 1904년에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다고 할 때, 그의 방법론적 관점을 제외하고 종교논문만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적절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김성호(2004)는 그의 저서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 (2004)"에서 베버 정치론의 대가라 지칭되는 몸젠(Wolfgang J. Mommsen)의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Sung Ho Kim, 2004 12-18쪽). 또한 김덕영(2010)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번역 역

실제 사회과학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이순구 선생님,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문환 선생님, 막스 베버 원전을 번역하신 전성우, 이상률, 박성환, 양희수 선생님, 베버저작에서의 ‘도시와 시민’을 중요하게 바라보신 전성우 선생님, 종교사회학에서의 양영진, 박승길 교수님, 방법론 연구에 있어서의 차성환, 이종수, 윤병철 선생님, 최근 시민사회를 가지고 연구를 하신 김성호 선생님, 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 사회학의 비교로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을 획득한 김덕영 선생님 등이 지속적으로 막스 베버와 관련된 주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국내 연구 상황에 기초할 때, 앨런이 제시한 베버 국가론에 대한 해석이 국내 막스 베버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책에서 저자의 의도는 베버가 극우주의자라는 면모를 제시함으로써 베버가 쓰고 있던 가치중립적 태도, 학자로서의 초연성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목적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저자는 베버비판을 통해 사회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길이라 함은 사회학에 깊이 뿌리내린 보수적인 사상을 뜻한다. 즉 저자의 의도는 ‘사회학 내부에 고여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파헤치고자 사회학 학문 세계 내 거대하게 자리 잡은 베버라는 미신을 타파’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궁극적인 저자의 의도를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앨런의 최종목표는 베버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통해, 베버 사회학의 허구성을 짚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베버의 정치론뿐만 아니라, 베버 종교론 및 방법론까지 포괄해서 설명한다. 물론 그 이유는 베버 사회학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증명코자 함이다.

이런 목적 하에서 연구된 이 책은 분명 일방향적인 베버사상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그가 제시한 베버의 면모 - 인종주의적 차별(특히 동양과

시 수준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기초할 때 막스 베버에 대한 영미권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막스베버 연구가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비교에 있어), 독일 제국주의에 대한 열렬한 옹호 - 등은 저자의 책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확고한 태도를 요구한다. 즉 베버에 대한 정치관 확립에 있어 저자의 의견을 옹호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할 때, 논평을 하려고 하는 자 역시 보다 확실한 자기 위치를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논평을 하는 자로서의 위치인 동시에 이 글에 대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해명하면, 저자의 베버 이해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베버를 접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나타날 반응이 궁금하다. 긍정의 파장이 아니라 반대급부로서의 파장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베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베버논의는 논쟁의 대상일 뿐, 어떤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논쟁이 되는 일부분의 시각만을 사실처럼 제시한 앨런의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그에 따라 본 논평의 목적은 그의 주장을 보다 균형 있게 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2. 앨런의 베버인식과 그 한계점

앨런 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그의 베버에 대한 논의를 3가지 관점으로 축약해 보았다. 앨런은 베버이해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베버의 종교론, 방법론, 정치론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 이해에 있어 앨런은 3가지 측면(방법론, 정치론, 종교론)으로 구분해 해명코자 한다. 우선 방법론에 기초할 때, 앨런이 생각하는 베버는 “물가치적인 학자”(35쪽) 이다.

그러나 앨런의 주장과 달리, 베버가 생각한 가치중립(가치자유, *Wertfreiheit*)는 오히려 근대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가치를 지향시켜야 하는 테제로 나타났다. 베버의 가치중립에 대한 논의는 우선 그의 유명한 연설인 ‘직업으로서의 학문(*Wissenschaft als Beruf*)’에서 비롯된다. 강연에서 베버는 작금의 독일대학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학생들과 자신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킬 수 있는 교수들 사이의 심화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수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가치자유(가치중립)’ 주장했던 것이다(Weber, 1992: 104쪽).

다른 한편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치중립’은 ‘인식과 당위의 문제를 구분’ 그리고 ‘사실과 가치’의 구분과 연관된다. 베버는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식’과 ‘당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²⁾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위치를 인정하더라도(인식의 차원), 사회적 행위로서 노동자들의 계급지위를 위해 싸울지는(당위의 차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 계열에서 인식과 당위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설명한다.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노동자 계급을 옹호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투쟁이 노동자-자본가 투쟁 못지않게 치열하다.

‘인식’ 과 ‘당위’의 설명을 위해 칸트(I. Kant)와 비교해보자. 베버는 칸트의 인식과 당위의 상관관계에 대해 큰 의문을 가졌다(Weber, 1922). 왜냐하면 칸트에게서 나타나는 제한된 인식에 기초한 행위의 정당성은 정언명령으로서 나타나는 행위의 타당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버에게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이해에 있기에, 당위의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베버는 일상생활영역을 ‘당위’라는 가치평가의 잣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생활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체 자신의 영역이다.(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악한 행위를 만든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을 몇몇의 당위적 관점으로 해석해낸다는 것이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이 당위의 생활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베버에게서 인식과 당위는 너무도 지향점이 다르기에 구분되어야 했다. 베버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에 실천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정비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칸트를 “보편적 공리를

2) 특히 베버는 당시의 “역사주의 방법론”과 “유물론적 방법론”의 당위성에 대해 비판한다(Weber, 1922: 209쪽).

행동기준으로 삼는 이성의 자기규율”이라 칭한다면, 베버는 “인간의 자기 의지를 실천하는 목적에 기초한 수단적 이성”이라 말할 수 있다.³⁾

한편 베버는 ‘사실’과 ‘가치’의 구분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뚜렷한 현실을 뜻한다. 그리고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소중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로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조약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많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치’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가치’만을 내세워 가치가 ‘사실’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베버는 바라봤다. 즉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있어 자신들의 문제의식이 분명 ‘가치’임에도 이를 ‘사실’로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과학연구자는 사회주의가 가지는 이상향에 대해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사실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치가 사실로서 인식되는 순간, 연구자는 스스로 (연구의)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황우석 박사의 거짓된 실험에서 그는 마치 없는 사실(가치)을(를) 있는 것처럼(사실로서) 꾸며냈고, 백인종이 우월하다는 생물진화론은 백인종들만의 가치(우월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를 전 세계 다른 인종들에게 사실인양 떠들어댔다. 이렇듯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뚜렷이 할 때 연구자는 비로소 가치중립을 가질 수 있다고 베버는 바라봤다.

나아가 베버는 연구자가 가치중립을 누리기 위해서 ‘가치지향을 가능케 하는 가치연관으로서의 가치중립’이 요구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연관시킬 수 있는) “문화인간”(Kulturmenschen)⁴⁾이 요구된다. 가치중립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인식

3) 관련하여 베버와 칸트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Roger Brubaker, 1985; 81쪽 참고.

4) “문화과학의 선형적 전체의 전체는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확실히 정해진 것, 혹은 총체적으로 어떤 문화의 의미 있는 가치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인간(Kulturmenschen)이 존재한다는 것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가치의 입장표명과 그에 따른 하나의 견해를 부여하는 것

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인데, 이럴 때 개인은 가치를 택하지 않고서는 가치중립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치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칼 만하임(K. Mannheim)이 주장한 바 있는 자유부동한 지식인(*sozial freischwebende Intellektuellen*)이 아니다. 베버는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비켜서 있을 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헌신적으로 달려들어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렇기에 연구자에게 있어 연구주체에 대한 선택은 그만의 고유권한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가치는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부여했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성과를 비출 수 있는 과학은 또 다른 문제들을 자신에게 던지기 때문이다(Weber, 1922; 214쪽). 이러한 역사의 과정의 새로움 속에서 가치중립이란 결코 몰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연관을 통한 가치중립이 된다.

표 1) 막스 베버 ‘가치중립’에 대한 논의

- | |
|--|
| <p>1) ‘강단에서의 가치중립’</p> <p>▶ 교수의 학생에 대한 가치개입으로부터의 자유</p> <p>2)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치중립’</p> <p>▶ ‘존재’와 ‘당위’의 구분과 ‘사실’ 과 ‘가치’의 구분을 요구하는 형태로서의 가치자유</p> <p>3) ‘가치지향을 가능케 하는 가치연관으로서의 가치중립’</p> <p>▶ 문화인간의 가치실현과 역사적 새로움에 대한 요구로서의 가치중립</p> |
|--|

베버의 정치론에 있어서도, 앨런은 베버를 독일 제국주의를 지향한

이다(Weber, 1922; 180쪽).”

학자라 주장하며, 이러한 예로 베버의 주장들, “아프리카에는 문화가 없다”(44쪽) 그래서 “이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44쪽)를 제시한다. 나아가 베버가 폴란드 노동자들을 “짐승”이라 불렀고, 나아가 “광범위한 문화적 퇴보를 뜻할 슬라브족의 침입”(47쪽)을 베버가 경고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앨런은 베버가 독일제국이 중부 유럽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한다. 흥미로운 점은 베버를 극우주의자라고 평가한 것은 본 저작 이외에도 여러 학술지나 저서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버를 극우주의자라고 평가하기 전에 보다 섬세하게 베버의 국가론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베버의 국가관(혹은 넓게 정치관)을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로서”이해(박승길, 1998: 16쪽; 김덕영, 2008: 이남석, 2002: Jaspers, 1987: 215-229쪽; Aron, 1980: 544-545쪽; Roth, 1965: 221쪽; Loewenstein, 1966: 101쪽; Beetham, 1974)한 입장이 있으며, “개인주의자”로서 이해(Gerth and Mills, 1958: 3-31쪽; Giddens, 1981: Boudon, 2007)한 논의가 있다. 또한 베버를 “국가주의자”로서 이해(박상섭, 1992: 18쪽, 윤원근, 2002: 김희영, 2006: 28쪽; Lukács, 1996: 672-673쪽, Mommsen, 1989: 22-24쪽)하거나 나아가 “파시즘과 관련”시켜 본 입장(Mayer, 1956: 93쪽; Baumgarten, 1964: 498-501쪽)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은 베버를 이해하는 연구자의 가치이지, 베버 자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베버는 제국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치체제를 신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강력히 희망했다. 베버가 살았던 당시에 이미 독일은 군국주의적 통치 및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베버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재각을 구성하는 지도자나 소수의 지도자를 추종할 뿐이며, 그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는 한에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뿐이다(Weber, 2002: 52쪽)”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말뿐인 의회가 아니라, 일하는 의회가 선동적인 자질이 아닌 적절한 정치적 지도자의 자질에 근거해 성장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일하는 의회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전쟁(1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 독일에는 그러한 의회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의회가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그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Weber, 2002: 55쪽)”고 주장한다.⁵⁾ 뿐만 아니라 베버는 전쟁(제 1차대전)에 대한 독일지식인들의 행보에서, 온건주의적 입장에서 있었다(오인석, 2002: 113쪽).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베버를 제국주의자, 독일 국가의 국익만을 생각한 전쟁광 혹은 지도자만을 강조하는 정치사상가 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앨런은 몸젠(Wolfgang J. Mommsen)의 막스 베버연구에 기대어서 베버의 정치론을 설명한다. 실제 몸젠은 베버가 독일 군국제국주의를 지지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A. Giddens, 1981; 10쪽). 몸젠의 경우, 베버의 책,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3rd edn(Tübingen, 1971)*와 *Max Weber-Gesamtausgabe*, ed Horst Baier, M. Rainer Lepsius, Wolfgang J. Mommsen, Wolfgang Schluchter and Johannes Winckelmann (Tübingen, 1984) vol. I/15 : *Zur Politik im Weltkrieg: Schriften und Reden 1914-1918*, ed. Wolfgang J. Mommsen in collaboration with Gangolf Hübinger(Tübingen, 1984)를 참고하여 베버의 정치론을 설명한다. 몸젠에 따르면 베버가 “독일국가의 역사적 임무는 정부의 형태와 관련된 다른 어떠한 질문보다 우선시되며,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다른 근본적인 임무도 독일국가의 역사적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Weber, 1971: 306쪽)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며, 또한 베버가 “나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그것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다. 나의 유일한 이해는 현실적인 국가정책을 강하게 하고, 이것을 독일 외적으로 지향하게끔 하는 가능성에 의의가 있다.”(Weber, 1984: 234쪽)고 바라봤다는 것이다. 게다가 몸젠의 경우 베버의 국가주의적 관점을, 니체(F. Nietzsche)와의 상관성으로 설명했는데, 이를 영웅적 비관주의(herotic pessimism)라 칭했다. 베버의

5) 베버의 의회주의에 대한 논의로서는 황산덕, 1976: 23쪽 참고.

다음과 같은 인용문 “나는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비장한 각오는 한편으로 초월적 의지의 강함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 퓨리탄의 삶이 가져올 철장의 규율(iron discipline)을 나타낸다고 몸젠은 바라본다(Mommsen, 1989; 25-26쪽).⁶⁾ 그러나, 몸젠은 엇갈린 베버이해를 진행시킨바 있다. 몸젠은 베버 정치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 2가지 상반된 연구를 진행시켰다. 다시 말해서 몸젠은 1) *The Political and Social Theory of Max Weber*(1989)를 출판하기 전, 베버관련 정치적 논의를 담은, 2)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1890-1920*(원문 :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1984)을 발표하였는데, 이 두 저작에서 나타난 베버의 정치적 해석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그의 1984년도 연구에서 몸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베버는 결코 의회주의제도가 지도자 리더십에 근거한 규칙에 의해 손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바라본다. 또한 베버는 일당주의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형태의 발전에 대해서 예상치도 않았다. 오히려 관료제의 과정에서 등장할 위험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만약 베버를 이해하는 자라면 누구나, 베버가 파시즘에 적대자(foe)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19년 이후 등장하는 보수적인 권리를 위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 베버는 걱정적으로 비판했다(Mommsen, 1984; 422쪽).”

“베버는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의 인식론적 위치가 베버 해석을 결정적인 관점을 제시한다(Mommsen, 1984; 427-428쪽).”

즉 1984년에 출판한 베버의 정치적 해석은, “베버를 이해하는 자들의 인식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베버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몸젠)은 베버가 결코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1989년의 저서에서, 몸젠은 베버를 “극단적인 국가주의자”로서 이해하고, 이것을 니체와 연결시켜, “영웅적 비관주의”에 기초

6) 이런 논의는 몸젠의 연구논문인 Mommsen, 1977; 394쪽 에서도 확인된다.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류성희, 2009: 121쪽). 이러한 몸젠의 엇갈린 베버 해석은 상당 부분 모호한 관점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⁷⁾ 따라서 몸젠의 모호한 해석을 그대로 앨런이 차용한 것은 재당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근거일 따름이다.

한편 앨런의 베버 종교론에 대한 설명에서도 역시 일방적인 입장에서만 그려진다. “베버는 “영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인도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했는지에 대해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다(109쪽).” 이처럼 베버가 식민 지배의 결과를 간과한 것은 그가 인종차별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종교》에서 베버는 동양인들이 서구인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 전제했고(108쪽), “아시아인의 무제한적인 탐욕”을 비아냥댔다(105쪽). 이런 관점은 자연히 식민 지배 정당화로 연결된다. 베버는 “ [인도에서] 소수 유럽인 지배층과 그들이 부여하는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제거하면 적대적 카스트, 종파, 종족 사이에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05쪽). 이런 식의 설명은 《중국의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앨런에 따르면 베버가 《중국의 종교》에서 “물질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을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애쓰긴 했으나(114쪽) 결국 다시 종교로 돌아갔다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관료제를 주도한 지식인들의 종교인 유교에 주목한다. 앨런이 보기에 베버는 중국 지식인들의 문화를 “노인”의 문화로 봤고 유교를 “예절과 세상에 대한 적응을 권장”하고 “하느님이나 정신적인 왕국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혁명적 힘이 없는” 종교로 치부했다(117-118쪽). ... 베버는 중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중국인들이 “특히 지적인 분야의 특이한 자극에 ... 느린 반응”을 보이며 중국어가 “체계적 사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119-120쪽). 나아가 앨런은 베버가 시행한 바 있는 문헌연구의 취약점을 설명하면서 그가 사회의 변화방식에 적용한 이상형이 궁극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흘러갔다고 해석한다.

7) 그 외 몸젠 연구에 대한 비판은 Sung Ho Kim(2004)를 참고.

그러나 베버의 비교종교학적 연구는 다양한 종교들의 ‘비교연구’일 뿐, 서구가 당연히 우월하다는 식의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았다. 실제 베버의 종교사회학 연구목적은 동-서양의 비교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의 적절한 (윤리적) 생활양식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에 기초해 서구의 (합리주의) 에토스에 대한 입문서적인 형성을 해명하는 한편, 그에 따르는 후속조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다(Weber, 1988, Schluchter, 1980: 15쪽; 이종수, 1986: 신준식, 2007). 이러한 관점을 마치 서구의 우월성만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베버에게 있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역사이해는 이전의 시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장이 우선시 되었고(Weber, 1988 :310-311쪽; 1922: 148쪽)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베버는 스스로를 아마추어라 자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베버는 종교를 통한 사회적 행위나 조직, 그리고 계급적 이해관계의 표출이 가지는 의의에는 관심이 있었지, 단순히 종교의 기원이나 혹은 종교를 이루고 있는 인적 토대의 개념이 결여된 종교 그 자체로서의 해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Weber, 1986: 97-102쪽; 1968: 434쪽).

“베버의 인식 관심은 어느 종교가 더 가치가 있거나 덜 가치가 있는가, 즉 가치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다른 문화종교들 외에도—고대 유대교와 유교를 비교 종교사회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의 역사적 개체가 금욕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역사적 개체와 다른 생활양식을 발전시키고 다른 합리주의를 촉진했으므로, 전자의 둘과 후자를 비교하면 후자의 역사적·문화사적 특징이 보다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김덕영, 2010: 651쪽).”

무엇보다 베버는 이미 서구몰락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Freund, 1981: 112-114쪽; Roth, 1978: 서문; Engisch et al, 1966: 195-243쪽). 그렇기에 앨런의 단순한 서구중심의 진화론적 도식은 수많은 베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시각이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번역의 문제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지적

하고 싶다. 사회학에서 전통이나 궁극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주요 사회학 이론가들의 저서나 논쟁서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번역하게끔 내버려 두는 현실은 분명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예컨대 “1904년 그(막스 베버)는 중요한 논문 「사회과학적 지식의 객관성」(*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41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베버를 읽은 독자라 하면 이 논문의 제목이 “사회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으로 번역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으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버이해에 대한 비판에 있어, 앨런이 제시한 베버 연구 2차 문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존재한다. 다른 아닌 베버 비판을 위해 베버 연구가들의 2차 문헌이 잔뜩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의 의도대로 비판을 위해서 베버 비판과 관련된 연구가들이 써놓은 다양한 문헌들을 제시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태도이다. 중요한 점은 베버 연구 2차 문헌들이 앨런이 제시한 베버 원전과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앨런이 제시한 베버 원전들 다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시점에서, 베버 원전과 2차 문헌의 괴리를 접할 때 드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앨런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프로크루스테스침대” 같은 논리구조도 거북스럽다. 한 예로, 베버의 논의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보다도 “사상”에 베버가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78쪽) 이와는 정반대되는 베버의 종교적 신념과 경제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해명한 “선택적 친화력”을 함께 설명한다는 점이다(144쪽).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베버논의를 짜깁기하는 형태라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베버의 선택적 친화성(*Wahlverwandschaft*)에 대한 논의는 후자가 적절한 것이며, 이와 비견하여 전철수(*Weichensteller*)⁸⁾개념 역시도 베버가 물질 부분과 이념 부분에 대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 Weber, 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

한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앨런의 베버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베버 연구가들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그의 연구가 보편적인 힘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베버의 모습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양한 시각의 베버 연구자들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앨런이 주장하는 일면체적인 시각은 오히려 다양한 베버시각을 가리고 있을 따름이다.(실제 앨런은 베버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그의 연구에서 베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찾기란 요원할 따름이다. 다음으로 그의 막스베버 정치론에 대한 시각은 몸젠에 기대어 있는 것인데, 몸젠 스스로 상반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앨런의 시각은 재탕에 불과하다. 또한 방법론에서 있어서도 ‘가치중립’에 대한 시각이 결코 전체적-총체적이지 못하다. 종교론적 시각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제시하면서 마치 베버가 서구의 동양에 대한 우월론자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베버의 진면목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부적절한 편집태도(베버 일차문헌과 이차문헌 사이의 적합성 여부, “프로크루스테스침대” 같은 논리구조)도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ziologie I, J. C. B. Mohr(Paul Siebeck) Tübingen, 252쪽을 참고.

참고문헌

- 김덕영, 2004, 『짐멜이나, 베버나?』, 한울.
- _____, 2008,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10, 「역주」, M.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도서출판 길.
- 김희영, 2006, 「빌헬름 시대 독일의 세계정책과 대중 민주주의」, 경주 사학』.
- 이종수, 1986, 「유교와 프로테스탄티즘의 합리주의 : 막스베버의 동서 문화 비교」, 『현상과 인식』, 제 10권 3호.
- 류성희, 2009, “막스 베버 지식사회학에 대한 일고찰 - K. Marx와 K. Mannheim의 지식사회학 비판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회학과 대학원.
- 신준식, 2007, 「막스 베버의 도교론에 관한 연구」, 『사회와 이론』, 제 10집.
- 박승길, 1998, 「현실세계의 이율배반성과 가치 공항적 현실에의 도전 : M. Weber사회이론에 함축된 현실관을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58집.
- 박상섭, 1992, 「현실주의 : 막스 베버에서 신현실주의까지」,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 오인석 편, 2002, 『바이마르 공화국 - 격동의 역사』, 삼지원.
- 윤원근, 1993, 「K. Marx와 M. Weber의 사상에 나타난 독일 지적 전통의 공동체 지향성에 대한 연구」, 199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황산덕, 1976, 『막스 베버』, 서문당.
- Alexander, J. C. “The Centrality of the Classics”, Edited by Stephen P. Turner, *Social Theory & Sociology*, Blackwell Publishers, pp. 21-38.
- Aron, Raymond. 1980. (*Les etapes de la pensee sociologique*, 이종수 옮김. 『사회사상의 흐름』, 홍익사.
- Baehr P and Wells G. C., 2002, “introduction”, *The Protestant Ethic and*

-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Other Writings*, Penguin Books.
- Baumgarten, Eduard. 1964. *Max Weber : Werk und Person*. Tübingen Mohr.
- Bendix, Reinhard., 1959, *Max Weber : An Intellectual Portrait*, London : Methuen & co, p. 64.
- Beetham, David. 1974. *Max Weber and the Theory of Modern Politics*. George Allen & Unwin.
- Boudon, Raymond. 2007. *Pourquoi les intellectuels n'aiment pas le liberalism*. 임왕준 옮김. 『지식인은 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가』. 기과량.
- Engisch, Karl et al. 1966. *Max Weber Gedächtnisschrift*, Berlin, Duncker and Humbolt.
- Frank, Andre Gunder. 2003.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이희재 역. 『리오리엔트』. 이산.
- Freund, Julien. *Sociologie de Max Weber*, 이종수 역. 『이해사회학 : 막스 베버 사회학의 새로운 조명』, 한빛신서.
- Giddens, Anthony. 1981. *Politics and sociology in the thought of Max Weber*. 김성건 옮김, 『막스 베버의 정치사회학』. 대영사.
- Howe, R. H., "Max Weber's elective affinities : sociology within the Bounds of pure rea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no. 2(september), pp. 366-385.
- Jaspers, Karl. 1987. "막스 베버의 학문을 기리며", 이홍균·엄규숙·이충진 옮김. 『사회학연구』. 다섯째 책.
- Loewenstein, Karl(1966). *Max Weber's political ideas in the perspective of our time*. trans. Richard and Clara Winston.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Lukacs, Georg. 1996. *(Die) Zerstörung der Vernunft*. 변상출 옮김, 『이성의 파괴』 II. 백의.
- Mayer, J. P. 1956.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 A Study in a*

- Political Sociology*, 2nd revised and enlarged. ed London : Farber and Farber.
- Mommsen, W. J. 1977, Max Weber as a critic of Marxism,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 No. 4.
- _____, W. J. 1984. *Max Weber and German Politics 1890-1920*(*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 trans M. S. Steinber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9. *The Political and Social Theory of Max We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mmsen, Wolfgang. 2009. “편집자 서문”, M. Weber, 『경제와 사회-공동체들』, 박성환 역, 나남.
- Robert M. Marsh, 2011, “Weber's Mis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hines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6. No.2 pp. 281-302.
- Roth, Guenther. 1965. “Political Critique of Max Weber : Some Implications for Poitical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2.
- _____. 1978. “introduction”, *Economy and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luchter, Wolfgang. 1980. *Rationalismus der Weltbeherrschung - Studien zu Max Weber*.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Sung Ho, Kim. 2004.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 New York: Cambridge.
- Weber, M. 1922.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68. *Economy and society*, ed.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2 vols(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71.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3rd edn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p. 306.

- _____. 1984. *Max Weber-Gesamtausgabe*, ed Horst Baier, M. Rainer Lepsius, Wolfgang J. Mommsen, Wolfgang Schluchter and Johannes Winckelmann(Tübingen, 1984) vol. I/15 : Zur Politik im Weltkrieg: Schriften und Reden 1914-1918, ed. Wolfgang J. Mommsen in collaboration with Gangolf Hübinger(Tübingen), p. 234.
- _____. 1986. “Die römische Agrargeschichte in ihrer Bedeutung für das Staats-Und Privatrecht”, *Max Weber Gesamtausgabe*, J.C.B. Mohr (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us soziologie I*, J.C.B. Mohr (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92. “Wissenschaft als Beruf”, *Max Weber Gesamt Ausgab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92. “Politik als Beruf”, *Max Weber Gesamt Ausgab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2002. 이남석 역,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책세상.
- _____. 2008. “Einleitung”,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us soziologie I*, J. C. B Mohr(Paul Siebeck) Tübingen.(M. Weber, “Einleitung”,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us soziologie I*, (『종교사회학 논문집』), 전성우 역, 나남, 2008, p. 182.

**The critique of Allen's book,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Sung Hee Ru

Allen's book,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was translated as Korean in 2010. In the book, Allen debunks hidden sides of M. Weber who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ociologists. Most of all, he explains Weber's intellectual concerns including methodological view, political theory even religious works. He, also, tries to criticize an conservative side of sociology in the book. He thinks that Max Weber's studies are exemplified in conservative sociology.

What I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confront Allen's interpretation of Max Weber. While his attempt is ambitious, his ideas about Weber's study are not relevant. First, according to Allen, Weber is regarded as an imperialist. However, a lot of researchers who have studied M. Weber do not agree with his idea and also Weber does not consent to imperialism of German based on militarism. In addition, It is not a proper idea that Weber's 'value free' (*Wertfreiheit*) could be understood as super-temporal or transcendental. Lastly, his religious view also has lots of biases. Especially, Allen misunderstands Weber's religious studies. He argues Weber's religious studies include superiority of Western culture. Weber's studies, however, have little superiority of western culture. Rather, Weber wants to compare the Western culture or lifestyle of Western with Oriental cultural area. In conclusion, the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has not only lots of controversies but also defects.

철학탐구 제30집

Key words: Weber, Value free, religious study, imperialist, methodology

류성희 e-mail: hanngl@naver.com

투 고 일	2011년 09월 14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01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22일